

## 공청회

일시 : 2018 년 5 월 6 일(12 시 55 분 ~ 1 시 45 분)

장소 : 마노아 성당

1. 시작기도: 박 베드로 (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)
2. 공청회/위원회 조직 배경 설명 : 김 엠마 사목 회장
3. 공청회 진행 : 강 아오스딩 위원장
4. 신자들 의견
  - i) 이번 기회에 한국 성당 짓는 작업을 추진 하자. (주 정부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.) 대전 선교부, 서울 교구, 미국 전역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가능 하다.
  - ii) 교회의 행정 체계가 연속성이 없다. 신부님이 바뀌면 회장단도 바뀌기 때문이다. 행정 체계가 견고해 질 때까지 추진 하지 말고, 제 4 안으로 모임을 주 중으로 옮기자.
  - iii) 투표는 주교님이 비오성당의 승격을 결정 한 후에 하자. 이 기회에 우리 성당으로 받을 수 있도록 차근 차근 준비 했으면 한다.
  - iv) 예전에도 나왔던 문제이다. 예치금은 이전 시목회에서 용도에 맞는다면 사용 할 수 있다고 들었다. 하지만 이 역시 주교님의 결정을 듣고 움직이면 좋겠다.
  - v) 준비위원회는 제 2 안 Mix zone 구입 비용등을 현실적인 감각으로 준비 했으면 한다. 상업 지역의 단가는 300 만불 이상 할 수가 있다.
  - vi) 마노아 지역은 상업지역이라도 아직은 걱정하는 만큼 비싸지 않을 수 있다. 중요한 것은 혹시 주변에 매물이 나와도 신자들의 동의가 없다면, 오퍼를 넣는 시간조차 기다려 주지 않는다. 동의가 있으면 건물을 알아 보는등 적극적으로 판매 의향을 물어 볼 수도 있다.
  - vii) 하와이는 다민속 사회이니 한인만을 위한 성당을 갖는 것은 쉽지가 않다. 오늘 불참한 사람들에게도 공청회 내용 전하고 투표 했으면 한다.
  - viii) 비오 성당은 신자 수로 보나, 재정상태로 보아 본당승격 자격이 없다. 교구청에 건의하자.
  - ix) Star of the Sea 로 이전도 검토해 보자
  - x) 신임 본당 신부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현 사제관을 쓸 수 있도록 건의하자.
  - xi) 공청회는 하되 투표는 하지 말고 차근 차근 더 생각해 보자.
5. 마침기도 : 박 베드로 (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)